

- (가칭)이어령 장관 창조관 건립 추진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계획(안)

- ❖ ‘시대의 지성’ 아산 출신 이어령 장관의 창조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도민, 공무원, 충남 문학가들과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 10. 20.(금), 14:00 ~ 16:00
- 장 소 : 아산시평생학습관 대극장
- 주 제 : (가칭) 이어령 장관 창조관 건립 추진을 위한 의정토론회
- 주최/주관 : 충청남도의회(복지환경위원회)
- 참석인원 : 약 300여명(도의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시민 등)

〈토론 참여자〉

좌 장

■ 김응규(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제자

■ 구지윤(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토론자 (4명)

- 김병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한식(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
- 장미숙(온양문화원 부원장)
- 이지원(충남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본부장)

※ 사회 :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정재선)

※ 추진과정에서 토론자 및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II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05'	개 회 및 국 민 의 례	• 사회 :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14:05~14:10	05'	내 빈 소개 및 개 회 사	• 김응규 의원
14:10~14:20	10'	축 사 및 사 진 촬 영	• 박경귀 아산시장, 이승무 교수
〈 토 론 회 〉 ※ 진행 : 김응규 의원			
14:20~14:50	30'	주 제 발 표	• 발제자
14:50~14:55	05'	자 리 정 리	(*복지환경위원회 직원)
14:55~15:35	40'	지 정 토 론	• 토론자 4명(각 10분)
15:35~15:45	10'	자 유 토 론	• 발제자, 토론자
15:45~15:55	10'	청 중 토 론	• 참여자 전체
15:55~16:00	-	정 리 및 폐 회	• 좌 장(김응규 의원)

III 세부 진행계획

1 개회 및 국민의례 : 14:00~14:05(05')

- 사 회 자 : 복지환경위원회 정재선 전문위원
- 국 민 의 례 : 국기에 대한 경례 (녹음반주)

2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 14:05~14:20(15')

- 주요 내빈소개(사회자)
 - 참석 도의원, 의회 및 집행부 간부, 기타 내빈 등 소개
- 개회사(김응규 의원)
- 축 사(박경귀 아산시장, 이승무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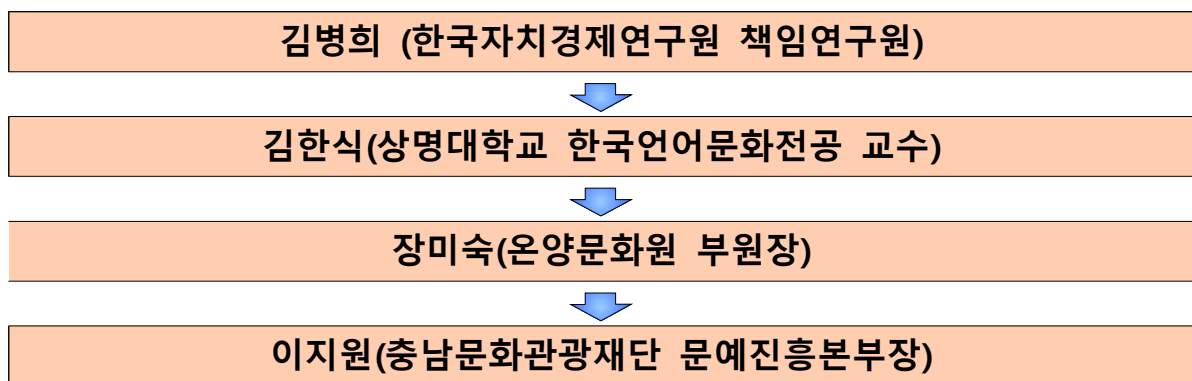
3 주제 발표 : 14:20~14:50(30')

- 구지윤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 2세기 창조서원, 글로컬을 아우르는 관광·교육·복지 자원으로서의 기념관 -

4 지정 토론 : 14:55~15:35(40')

- 발표 순서

※ 토론자 1명당 10분 정도 발표



※ 추진과정에서 토론자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5 자유 토론 : 15:35~15:45(10')

- 발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 패널 상호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6 청중 토론 : 15:45~15:55(10')

- 토론 주제에 대한 방청객 청중 토론
⇒ 질문자 마이크 제공

7 정리 및 폐회: 15:55~16:00

- 진행자 마무리 발언 후 폐회

목 차

발제

- 07 21세기 창조서원, 글로컬을 아우르는
관광·교육·복지 자원으로서의 기념관
구 지 윤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토론

- 23 이어령 창조관 기본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김 병 희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29 한국의 문학관
김 한 식 (상명대학교 한국어어문화전공 교수)
- 35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모여드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장 미 숙 (온양문화원 부원장)
- 39 우리는 이어령 창조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지 원 (충남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본부장)



발 제

**21세기 창조서원, 글로컬을 아우르는
관광 · 교육 · 복지 자원으로서의 기념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구 지 윤

이어령 창조관 건립 추진을 위한 충남도청 의정토론회

21세기 창조서원, 글로컬을 아우르는 관광, 교육, 복지 자원으로서의 기념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 구지윤

INDEX

- 01. 이어령 창조관의 비전과 목표
- 02. 글로컬 관광, 교육, 복지 자원으로서의 기념관
- 03. 창조관 운영, 전시 콘텐츠 개발 방안
- 04. 창조관 건립을 위한 건축 공모 방안



©김용호

1. 비전과 목표

이어령 창조관의 비전과 목표

이어령 창조관의

미션

책과 지성의 학식을 경륜으로 접목한

21세기형 선비, 능소 이어령 전 장관의 기념관은
고인의 삶의 궤적을 통해 한국의 문화원형을
끊임없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을 추구하는 창조적 역동의 공간이 될 것이다.



**21세기형
선비의**

창조적 역동의 공간



한국의 문화원형
현대적 재해석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자료나 유품 따위를 진열하여 두는 곳

기념관의 사전적 정의

이어령 창조관의 비전

사전적 정의, 그 너머의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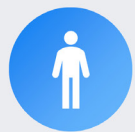
21세기 창조 서원

21세기형 선비가 재해석한 한국의 문화원형,
새로운 기술과 만나 교육 인프라가 되다

끊임 없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한국의 문화 원형



자료나 유품을 보여주는 물품
중심(Object-based)의
기념관 전시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어령의
인사이트를 새로운 기술과 접목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

이어령 창조관의 비전

21세기 창조서원, 선비의 정원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으로
자리매김했던 선비의 정원,
21세기 문화의 요새로
다시 상상하다



지역사회 복지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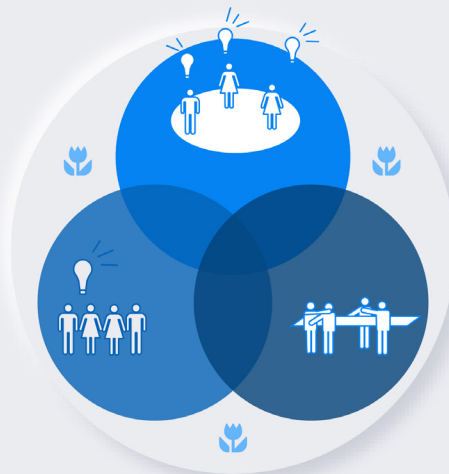
선비의 은둔처이자 사색의 공간이었던 문인의 원림 정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과 조화롭게 학문을 배우고 머무는 학교로 변화하였고, 그 학교는 지방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거나 논의할 수 있는 사무실, 성인들의 기록을 보관하는 수장고, 성인들을 기리는 제사공간, 여행 중인 관리들이 밤을 보낼 수 있는 호텔, 놀이나 겨울기를 위한 마당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지역의 공공의견을 좌우하는 견고한 교육 문화의 요새로 자리매김했다.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 추모하는 기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공원의** 형태로 개발

추모, 쉼- 휴식의 기능

글을 숲, 말의 정원, 카페 아날로그



전시- 사회교육 기능

디지털그 전시관

연구- 문화교류 기능

창조랩 연구실
레지던시

글로벌 콘텐츠

One & Only 이어령 창조관의 핵심 가치

88올림픽

한국인
이야기

지의최전선

생명이
자본이다

디지로그
선언

벽을 넘어서

생성과 충돌

분기, 목, 인터페이스

양력과 생명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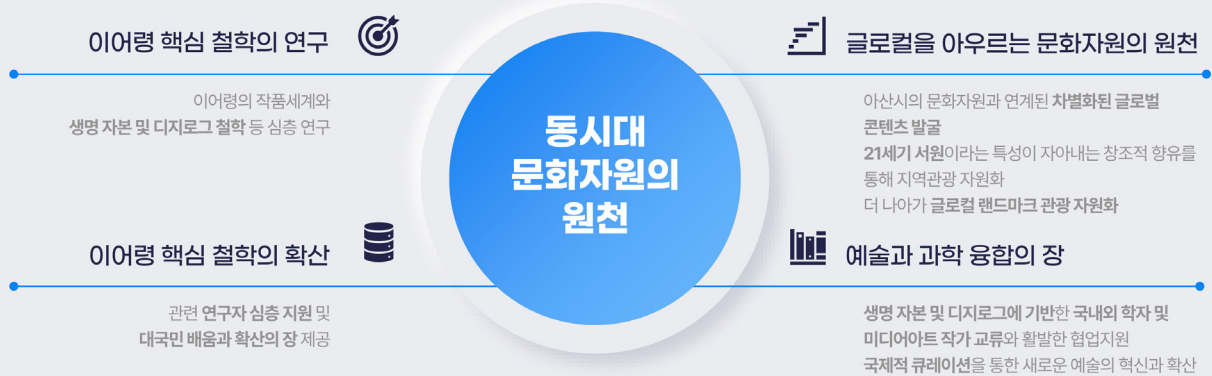
디지로그

“

언젠가 내가 판 우물물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
그 물을 이글을 읽어 주실
여러분과 **함께 마시는**
기적 같은 날들이 찾아오게 될는지

이어령/ 우물을 파는 사람

이어령과 미래가 샘물을 함께 마시는
이어령 창조관의 목표



2. 글로벌 관광, 교육, 복지 자원 으로서의 기념관

운영, 전시, 건축 통합 계획

글로벌을 아우르는 One and Only 지역 관광 자원

기념관이 전국구 관광, 교육, 복지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운영

국제적 인지도의 전문가 운영위원회 설립
이사장(시장), 소장(예술감독), 큐레이터로 구성된
창조관 연구소(가칭 창조랩) 설립

전시

이어령 연구 프로그램 및 예술전시 큐레이션 개발
디지털 페스티벌 기획 및 추진

건축

글로벌 랜드마크 관광 자원화를 위한 공공건축 디자인
연구+전시+추모의 기관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공원의 형태로 개발되는 공공 프로젝트

통합기획

글로벌을 아우르는 지역 관광 자원으로써 발돋움한 문화 예술기관 예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Ars Electronica), 오스트리아 린츠

세계 최초 미디어아트를 위한 페스티벌 개최

5일간 린츠의 16개의 장소에서 도시기반의 페스티벌을 개최, 세계 최초
미디어아트를 위한 페스티벌 개최(1979)로 린츠를 유럽 미디어아트의
허브로 성장하게 함.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융합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으로 사회에 질문과 솔루션을 던지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미디어아트 연구의 가장 권위있는 예술기관으로 한때
공해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인구 20만 명의 작은 도시를 9월이면 10만
명 가량의 방문객이 찾는 문화 도시로 부상하게 하였다.



글로벌을 아우르는 지역 관광 자원으로써 발돋움한 문화 예술기관 예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Ars Electronica Festival)



글로벌을 아우르는 지역 관광 자원으로써 발돋움한 문화 예술기관 예시

빌바오 구겐하임 (Guggenheim), 스페인 빌바오

쇠퇴한 공업도시를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하고자

민관협력체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을 설립, 새로운 빌바오를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에 성공. 3명의 유명 건축가를 지명해 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독창성을 강조한 프랭크 게리의 안으로 도시의 랜드마크를 건설.



도시를 살린 가장 유명한 건축물

인구 35만명의 쇠락한 공업도시였던 빌바오에 1997년 개관 후 꾸준히 연간 100만명을 유치하고 있는 구겐하임. 개관 후 3년 동안 방문한 약 4백만명의 관광객은 미술관 건설비용에 달하는 세수를 제공했다. 이후 도시에 호텔,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하나의 건축물이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



글로벌을 아우르는 지역 관광 자원으로써 발돋움한 문화 예술기관 예시

루이지애나 미술관 (Louisiana Museum), 덴마크 홀레벵

세계적 컬렉션과 루이지애나 문학 페스티벌

3,500점의 세계적 작품들을 보유하고 계속해서 소장품 수를 늘려가고 있는 이 미술관은 1958년 개인의 소장품을 대중에게 공개하기위해 처음 개관. 미술, 음악, 건축을 주제로 열리는 연간 6-10회의 전시와 세계 우수한 문학을 위한 페스티벌을 개최, 덴마크의 문화 오아시스로 자리매김.



바다, 호수, 숲에 기대어 있는 예술작품과 건축

루이지애나 미술관은 세계적 작품의 컬렉션 뿐만 아니라 미술관을 둘러싼 바다, 호수, 숲으로 유명하다. 유리 재료를 쓴 키 낮은 건축물이 그러한 환경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우아하게 설계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알려졌다. 코펜하겐에서 4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위치한 미술관이 연간 6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까닭이다.



글로벌을 아우르는 지역 관광 자원으로써 발돋움한 문화 예술기관 예시

루이지애나 미술관 (Louisiana Museum), 문학 페스티벌

Louisiana Literature Festival





3. 창조관 운영, 전시 콘텐츠 개발 방안

창조관 운영 방안

운영위원회 설립

운영방향 설정 및 하부 연구조직 인사/운영/관리
창조관의 미래발전 로드맵 (국립화 등) 수립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문학재단

+ 이어령 기념사업회

**유관기관
전문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국제적 인지도
전문가, 예술가**

창조관 운영 방안

연구소 (가칭 창조랩) 설립

이어령 연구 프로그램 및 예술전시 큐레이션 개발,
지속가능한 연구자원 확보 및 지적재산 계약 및 관리
예술가 및 연구자 어워드 제정 및 시상
첨단기술,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지향하는 작가지원 레지던시 운영
국제네트워크를 위한 심포지움 학술행사 및 저널 발간
디지털 페스티벌 기획 및 추진, 대국민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아산 시장

이사장

예술감독

상주 소장

큐레이터

상주 큐레이터



4. 창조관 건립을 위한 건축 공모 방안

창조관 건립을 위한 공모 방식

1) 지명공모

운영위원회가 설계자를 지명하여 공모하는 방식

2) 2단계 설계공모

건축가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구상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보다 구체화된 공모안을 받아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

3) 일반 설계(공개)공모

설계자의 별도 자격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

1순위

지명공모

높은 수준의 디자인 해답을 찾기 위해
지명공모 혹은
2단계 설계공모가 적절

공공 건축물 프로젝트의 제약

예산규모 공공건축물

공공 건축물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고

관급자재 사용 규정

발주기관 승인 후 자재가 결정나는
등 관급자재 사용 규정으로 디자인
제약이 많다는 점



일반 공개 공모 방식으로 좋은
건축가들의 참여유도 어려움

이러한 제약은 일반 설계 (공개) 공모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
국내외 좋은 건축가들의 참여 유도가 어렵게 한다. 글로벌
랜드마크 관광 자원을 건립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높은
수준의 디자인 해답을 찾기 위해 충남도청과 아산시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창조관 공모 방안

창조관 건립 공모 위원회 구성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 발주기관의 임명 또는 위촉을 통해 구성: 아산시, 영인문학재단/ 이어령 기념사업회, 관련협회 및 학회
국내외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 (한국건축사협회,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국립현대미술관, 한예종 등) 중 발주기관과 창조관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유사사업 설계 경험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 설계공모 방식 자문, 설계 지침서 작성지원 검토, 지명 설계자 및 심사위원 후보자 추천, 기술위원 추천

공모 운영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발주기관과 창조관 운영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
- 심사위원회 구성 핵심: 유사사업 설계 경험자 중 국제적 인지도의 건축가, 조경가, 건축가협회를 대표하여 선임된 국내 건축가, 국내외 유관 기관 관장, 충남도청 유관 부서 전문가 등, 건축가를 포함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규정
- 운영위원회로부터 기술위원 후보를 추천 받아 기술위원회 구성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검토, 구조, 시공, 설비 등 심사)

감사합니다!

THANK YOU

의정토론회 발제 | 구지윤





토론

이어령 창조관 기본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병 희**

Ⅰ 이어령 창조관에 대한 이해

1. 이어령 창조관의 개요

1.1 이어령 창조관의 건립의 목적

- 가. 아산 출신의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 및 크리에이티브였던 이어령 선생님의 삶과 철학이 반영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나. 나아가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창조관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도모

1.2 이어령 창조관의 건립을 위한 과업범위

- 가. 공간적 범위 : 아산시 관내
-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3년
- 다. 내용적 범위 : 창조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창조관의 비전, 목표 설정
 - 창조관의 브랜드 정체성(B.I) 분석 및 제안
 - 현황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 전문가 의견 수렴
 - 사업 적합 대상지 후보군 선정
 - 창조관 공간 구성 계획 수립
 - 창조관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 창조관 관리 운영 방안 제시
 - 창조관 수요예측, 비용편익, 기대효과 분석
 - 창조관 건립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 분석
 - 종합분석 및 결론

1.3 과업기간

- 2023년 7월28일 ~ 2024년 1월23일

2. 이어령 창조관 건립 주요 과업내용

2.1. 창조관의 비전, 목표 설정

가. 사업의 필요성 정립

1) 아산시의 정체성 및 상징적인 이미지 부각 방안 마련

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비전 및 목표, 역할과 기능 설정

다. 문화예술도시 아산의 정체성을 부각할 방안 마련

라.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2.2. 전문가 의견 수렴

가. 아산시와 협의하여 유족대표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시로 포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

나. 전문가 포럼 및 간담회는 전문가들이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획

- 창조관 조성 사업의 비전 및 기본계획 추진방향
- 창조관을 활용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 이어령 연구 활성화와 활용 방안
- 창조관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2.3. 창조관의 브랜드 정체성(B.I) 분석 및 제안

가. 이어령 선생의 삶과 문학,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한 뒤 연구보고서 작성, 해당 연구가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나. 연구 보고서 및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창조관의 주 이미지와 운영 프로그램 전반에 연결할 수 있는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 분석 및 제안

2.4. 현황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가. 국내외 유사 시설 현황 조사·분석*(5곳 이상)

- 운영 소요인력, 재정상황, 관람객 수, 문제점, 시사점, 차별화 방안 등
- 소장품 관리 및 운영방식, 도입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업 내용

나) 창조관 조성사업 관련 법규, 추진절차 및 정부정책 등 외부 환경 분석

다) 유사 사례 분석 종합*

- 차별화 방안, 발생 가능한 문제점, 사례별 장단점 등

2.5. 창조관 공간구성 계획 수립

- 가. 제시된 공간구성 형태에 부합하는 시설물의 종류, 적정 규모 등 설정
 - 주차장, 야외조각물, 조경 등 외부시설의 규모, 구상 및 배치 방안
 - 전시·수장·교육·사무관리 등 내부시설의 규모, 구상 및 배치 방안
 - 전시관, 시설별 진입로, 주차장 등 주요 공간별 효율적 동선 및 시설 배치 방안
 - 학술사업이나 아카이브 사업이 가능한 공간
 - 자료 열람실, 카페 등 방문객이 머물수 있는 공간 설정
- 나. 개괄적인 구상도, 층별 평면계획 수립
 - 건물 내부 평면구성, 외관·시설 및 장비내역 등을 포함

2.6. 창조관 전시 콘텐츠 구성 기본계획 수립

- 가. 아산시를 인문도시로 특화할 수 있는 철학이 반영된 전시 콘텐츠 기획
- 나.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방향 제시
- 다. 전시 콘텐츠 활용의 확장 방안
 - 온라인 및 비대면 구현 방안, 스토리텔링 활용, 지역 특화사업 발굴 등
- 라. 창조관 자료수집 및 관리계획 기본방향 제시
 - 수집, 보존, 수장 기본계획(안)
 - 자료수집 규모 및 계획, 수집방안 및 아카이브 구축 관련 사항 등
- 마. 창조관 소장 자료의 서비스 기본계획 기본방향 제시
- 바. 창조관 자료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방안 제시

2.8. 창조관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2.9. 창조관 관리운영 방안 제시

2.10. 창조관 수요예측, 비용편익, 기대효과 분석

2.11. 창조관 조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 분석

2.12. 종합분석 및 결론

- 가. 창조관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론 도출
- 나. 창조관 조성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다. 창조관 조성 사업 추진 시 수반되는 행정절차와 그 이행 방안 제시
- 라. 창조관 조성 사업의 합리성, 효율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타 제언
- 마. 총체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3. 과업 수행일정계획_예정공정표

연구내용		기간	추진일정						A/S
			1M	2M	3M	4M	5M	6M	
0. 선행연구									
1. 제반여건분석 및 의견수렴									
	지역현황 및 기존 문화시설 기초자료 검토								
	사업대상지 환경 분석, 평가 및 입지 선정								
	국정과제, 정책, 민선8기 공약, 관련계획, 법제도 검토								
	국내외 유사시설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민, 관계자 설문), 전문가 자문								
	SWOT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2. 기본구상 및 건립·운영계획 수립									
	건립 필요성, 비전 및 목표, 역할, 기능 설정								
	브랜드 정체성(B.I) 분석 및 제안								
	시설물 규모, 도입시설, 기능별 공간구상								
	부문별 계획(토지이용, 동선, 배치, 조경, 주차장 등)								
	전시 콘텐츠 구성 기본계획 수립								
	교육문화프로그램 기획 방향 및 콘텐츠 도출								
	관리 운영계획(조직편성, 인력구성 계획 등)								
	수집, 보존, 수장 및 국내외 교류협력 방안								
	이용 활성화 방안-공간운영 및 프로그램 도출								
	온라인 서비스, 홍보마케팅, 야외 공간 활성화 방안								
3. 타당성 검토 및 종합 결론									
	수요추정(연간 이용자 수요예측 및 적정 수용능력 산정)								
	비용 및 편익추정(총사업비, 운영비, 직·간접 편익)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일정 제시								
	타당성 분석(재무성, 경제성), 정책성 분석(과급효과분석 등)								
	창조관 조성 제반 행정절차 이행(문체부, 투자심사 등)								
	종합분석 및 결론								
행정절차 이행	발주부서 협의		■	■	■	■	■	■	
	전문가 자문회의				■		■		
	보고회 일정		착수			중간		최종	
	성과품 납품								납품



토론

한국의 문학관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 김 한 식

한국의 문학관

김한식 (상명대학교 한국어어문화전공 교수)

문학관이 아닌 창조 서원

문인의 기념관이라 하면 흔히 문학관을 떠올리게 된다. 예산과 인력 등에 따라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전국에 산재한 문학관의 모습은 대부분 비슷하다. 이는 관람객으로 늘 아쉬운 점이었다. “이어령 창조관 건립 추진을 위한 의정토론회 발제”는 이어령 전 장관의 기념관을 “창조 서원”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하자고 말한다. “창조 서원”은 “연구기관과 전시관 그리고 추모 기관의 역할을 아우르는 지역 사회 복지 공원 형태”로 개발된다고 한다. 현 발제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짐작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이 기왕에 존재하는 어떤 기념관보다 ‘창조적’인 결과를 낳기를 기대한다.

정지용 문학관 <https://www.oc.go.kr/jiyong/index.do>

충청도 지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문학관은 옥천의 정지용 문학관이다. 정지용의 문학사적 위상에 비추어 보면 규모는 소박한 편이다. 기념관은 생가터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기념관 내부는 시인의 작품 전시실,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벽면 해설, 영상을 볼 수 있는 작은 극장, 기념사진이나 기념 낙관 등을 찍을 수 있는 부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용 문학관에서는 지용회 주최로 매년 지용제가 열린다. 지용제는 백일장과 답사, 강연과 문학상 수상으로 진행된다. 주변의 터가 넓지 않아 문학관 내외의 수용인원은 많지 않다. 옥천군 문화 회관 등이 행사장으로 쓰인다.

전국에 산재한 많은 문학관이 정지용 문학관과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고창의 서정주 문학관, 안동의 이육사 문학관, 당진의 심훈 문학관, 경주의 동리-목월 문학관, 강진의 영랑 문학관, 인제의 박인환 문학관, 평창의 이효석 문학관이 그러하다. 고창의 서정주 문학관은 폐교를 개조하여 만들었는데 적은 비용에 비해 콘텐츠 활용이 뛰어난 문학관이다. 철저하게 시 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학관이다. 이육사 문학관은 문학과 역사 그리고 풍경을 하나로 묶어 강한 인상을 준다. 극장의 스크린을 열면 안동의 전원 풍경이 펼쳐진다.

박경리 문학 공원 <https://www.wonju.go.kr/tojipark/index.do>

원주의 박경리문학공원은 1999년 5월 완성 후 ‘토지문학공원’으로 불리다가 2008년 ‘박경리 문학 공원’으로 개명하였다. 작가 박경리를 기념하는 집과 소설 『토지』를 재현한 공원이다. 공원 시설로는 ‘옛집’, ‘문학의 집’, ‘북 카페’, ‘평사리 마당’, ‘용두레 별’, ‘홍이 동산’이 있다. 공원에는 작가가 생전에 손수 가꾸던 텃밭과 옛집, 정원, 집필실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문학의 집 2층에는 생전의 작가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과 유품 전시관이, 3층에는 소설 『토지』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영상물실이 있다. 또 각종 문학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문학 공원 내 북 카페는 원주시민과 탐방객이 책도 읽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박경리문학공원은 연간 10만 명 이상 탐방객이 찾는 원주의 명소이다. 문학 공원에서는 백일장, 시낭송회, 음악회 등이 열린다. 공원 측은 소설 『토지』 학교, 박경리 문화 학교 등을 열어 박경리 문학과 그의 소설 『토지』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김유정 문학촌 <http://www.kimyoujeong.org/>

김유정 문학촌은 소설가 김유정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기 위해 생가를 복원하고 전시관을 지어 2002년 8월 6일에 문을 열었다. 김유정 역에서 멀지 않은 낮은 언덕에 기념전시관 및 부대 시설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김유정 작품의 주요 무대인 실례마을에는 문학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사)김유정기념사업회가 김유정문학촌을 수탁 운영하다가 2020년 1월부터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김유정 문학촌은 춘천답갈비처럼 영서지방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하는 명소가 되었다.

만해마을 https://tour.inje.go.kr/tour/around/around_look?cid=362&mode=read

만해 한용운 기념관으로는 흥성의 만해 생가지가 있고 서울에 심우장이 있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 만해마을이 가장 크다. 만해마을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있다. 시인이자 불교의 대선사, 민족 운동가로 일제 강점기 민족혼을 불어넣은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려 만든 수련장이다. 청소년과 대학생 수련, 기업 연수, 가족 휴양에 적합한 숙박 시설과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만해 문학박물관을 비롯하여 문인의 집, 만해 학교, 서원 보전, 님의 침묵 광장, 님의 침묵 산책로가 있다. 단체 MT, 연수를 할 수 있는 설악관, 단체수련, 집중학습을 할 수 있는 금강관도 있다. 휴식 공간인 북 카페도 운영되고 있다. 만해마을에는 문인 창작집필실이 있었다. 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곳으로 문예 진흥원에서 숙식비 전액을 지원했다. 최장 4개월을 머물 수 있는 이곳에서 문인들은 창작이나 집필에 몰두하거나 격의 없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령 콘텐츠의 활용

이어령 콘텐츠contents의 특징은 다양성 그리고 창조 에너지의 쉼 없는 발산에 있다. 이어령 기념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는 이어령이라는 콘텐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념관이 이어령 콘텐츠에 어울리는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증과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어령 기념관은 이어령에 어울려야 한다. 유행을 좇거나 겉멋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어령 콘텐츠contents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선행되길 기대한다.



토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모여드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온양문화원
부원장 장미숙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모여드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장미숙 (온양문화원 부원장)

1. 인물 이어령

시대의 지성인 능소 이어령은 아산시 좌부동이 고향으로 문학평론가, 언론인, 저술가, 대학 교수를 지낸 국어국문학자이며, 88서울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세계적인 문화 이벤트로 승격시킨 문화기획자로 노태우 정부에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초대 문화부 장관(1990~1991)을 지내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국립국어원을 설립하였으며, 도서관 발전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등 문화정책 기틀을 확고히 세워 놓았다.

1956년 한국일보에 문학평론 <우상의 파괴>를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하였으며, 개인 저서 185권의 집필 작가로 1963년도에 출간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최고의 수필집이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나오는 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겨운 고향 아산의 이야기가 밑바탕이 되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는 고향 아산을 사랑하고 그리워했음이 분명하다.

2. 가칭)이어령 창조관 건립 필요성

1) 건립 필요성

- 아산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며 문학가, 크리에이티브인 故 이어령 선생의 정신을 조명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 인물사 연구를 위한 자료 보존과 ‘아트 밸리 아산’ 브랜드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문화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대도시에 몰려 있는 문화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이어령 창조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교통의 중심지 아산

- 아산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교통의 중심지로 광역 교통망 연계와 수도권 전철망이 구축되어 있어 지리적 조건으로 이어령 창조관 건립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3) 높은 성장 잠재력의 젊은 도시

-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도시로서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요충지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평균 연령 40.1세의 젊은 도시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도시이다.

4) 문화예술 공간

- 역사와 문화, 관광도시인 아산은 현충사와 외암민속마을, 인주공세리성당, 신정호 아트밸리 등 365일 축제와 문화예술이 넘쳐나는 도시지만 ‘아트밸리 아산’에 걸맞은 공연장과 미술관, 체험관 등 문화예술 공간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이다.

3. 이어령 창조관이 건립되면

1) 시민의 문화복지 실현

-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격차가 해소될 것이다.
- 문화·예술·교육의 기초 거점으로 시민들의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스마트 뮤지엄 구축을 통한 정보 연결성 및 새로운 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한 차원 높은 꿈을 키워줄 수 있다.

2) 이어령 창조관과 문학인들

- 이어령의 문학 세계를 찾아 전국 문학인들의 발걸음이 365일 끊이지 않을 것이며, 문학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으로 아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 숙박 가능한 교육, 세미나, 학술대회, 시낭송회 등을 통해 상업적 가치는 물론 전국 제일의 문학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4. 맺으면서

선진국, 과거에는 선진국의 의미를 사전 그대로 ‘다른 나라보다 문물의 발전이 앞선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진국은 시민들의 삶에 문화예술이 얼마나 녹아 있느냐를 먼저 생각한다. 그만큼 문화예술 향유와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령 창조관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창조의 씨앗을 선사하고, 함께 축제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며, AI 등 첨단기술이 만나는 생성형 문화 공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되는 창조공간이 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모여드는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



토론

**우리는 이어령 창조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충남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본부장 이 지 원

우리는 이어령 창조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지원 (충남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본부장)

발제문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되는 단어는 '창조 서원'이었다.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는 '전 장관'이라는 호칭이었다.

능소(凌宵) 이어령에 대한 필자의 평가는 특별한 '문인'이었음은 물론, '언론인' '행정가' '비평가' '사회학자' 등 많은 분야에 속한 분이셨고, 심지어는 올림픽 등 주요 국가행사를 주도했던 문화기획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낸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속해있던 각 분야에서 그 분야에만 종사했던 다른 전문가들과 비견해도 매우 큰 업적들을 남겼다.

이는 대다수 사람의 기억 속에 그려진 '이어령'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부문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자랑스러운 충남의 위인 '이어령'을 이야기할 때 '전 장관'이라고 칭하는 것일까? 혹시 우리는 그분이 장관으로서 행한 업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기념관 건립이 논의될 만큼 다른 장관책임자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하고 고민해야 할 사인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그 분의 장관 재임 시 업적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기념관'을 계획하는 것이 아님을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전 장관'이라는 이미지가 아닌 창조적 위인 '능소(凌宵) 이어령'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심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발제자의 '창조 서원'이라는 비전은 매우 훌륭한 설정이며,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어령 기념관' '이어령 문학관' '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능소(凌宵) 이어령 선생님과 필자는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난다. 그로 인해 당연히 필자의 기억 속에, 그분에 관한 많은 것들이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필자에게조차 '이어령'이라는 인물은 매우 강한 이미지로 남아 계신 분이며, 특히

논란이 될 정도로 시대를 넘어섰던 그분의 다른 시선들과 행적들은 '창조'와 '창의'를 중요시하는 현세대의 본보기가 됨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 점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고 기억하게 해야 할 중요한 자산임을 부각하게 시켜 계승시키고 본받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어령 창조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답은 나온 듯하다. 필자는 발제자의 의견대로 '기존의 물품 중심의 기념관 전시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술과 접목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이에 기인한 새로운 전시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강력하게 찬성한다. 또한 '건축'과 함께 '운영'과 '콘텐츠'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정말 바람직하고 앞을 기대하게 되는 계획이라고 판단되었다.

거기의 한 가지 의견을 보탠다면, 일의 순서이다. '건축'과 동시에 '운영'과 '콘텐츠' 측면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향성 수립'과 '콘텐츠 개발'을 먼저 완료한 후에 '건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운영 방향성과 콘텐츠 활용에 최적화된 독창적인 건축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운영'과 '콘텐츠' 측면에서 이어령 선생님의 다양한 분야의 업적을 감안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국 각지에 존재하는 수 많은 기념관이 콘텐츠 부재로 인해 방문객이 없는 유령의 집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추진했던 필자의 경험으로 보자면, 단순히 보고 듣는 것에 만족하는 관람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아카데미식 일방적 교육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지는 오래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육 방법이 아닌 '다시 하고 싶은 체험'을 통한 교육 공간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능소(凌宵) 이어령 선생님의 비평과 평론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시대를 넘어선 '창의력'과 '창조력'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체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메모지로 사용하세요!

메모지로 사용하세요!

[illegible]

메모지로 사용하세요!

[illegible]

메모지로 사용하세요!

[illegible]

메모지로 사용하세요!

[illegible]

메모지로 사용하세요!

[illegible]

메모지로 사용하세요!

[illegible]